



## 도시생태의 시적 수용과 전망

– 이하석, 최승호, 이문재 시를 중심으로

The Poetic Accommodation and Prospect of Urban Ecology – Focus on the poetry of Lee, Ha-Suk, Choi, Sung-Ho, Lee, Mun-Jae

---

저자                   이혜원  
(Authors)           Lee Hye-Won

출처                    [문학과환경 7\(2\)](#), 2008.12, 115–139 (25 pages)  
(Source)            [Literature and Environment 7\(2\)](#), 2008.12, 115–139 (25 pages)

발행처                [문학과환경학회](#)  
(Publisher)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terature & Environment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226806>

APA Style            이혜원 (2008). 도시생태의 시적 수용과 전망. 문학과환경, 7(2), 115–139.

이용정보            고려대학교  
(Accessed)          163.152.3.39  
                          2016/03/07 16:1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 도시생태의 시적 수용과 전망

## — 이하석, 최승호, 이문재 시를 중심으로

이 혜 원  
(고려대)

### 1. 서론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화와 도시화의 속도는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큼 경이로운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도시 인구비가 10%를 넘기 시작한 것은 1940년 이후의 일이며 30%를 넘은 것은 1966년 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1975년에는 전인구의 5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1980년에 이르러 선진국 수준인 60%에 도달하였다. 1990년에는 인구의 85%가 도시에 살고 있다.<sup>1)</sup> 이제 도시는 보편적인 삶의 공간으로 부정할 수 없을만큼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좁은 의미의 자연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 및 자연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포괄하게 된 생태학의 새로운 경향<sup>2)</sup>으로 볼 때, 도시 환경이 갖는 생태학적 의미는 각별하다. 문학

---

1) 최운식, 『미래사회와 환경』, 한울아카데미, 1999년, 109쪽.

2) 최병두, 『환경갈등과 불평등』, 한울, 1999년, 470쪽.

그밖에 이 책에서 요약하고 있는 생태학의 새로운 경향은 다음과 같다. 생태학은 단순히 정태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자연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인간사회의 역사성을 고찰할 필요를 갖게 되었고, 자연의 영역 내에 한정된 것으로 인식했던 물질적 흐름을 인간사회로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와 자연환경 간의 상징적 관계(특히 가치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

에서는 최근 서서히 도시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생태비평이 보다 많은 독자에게 환경문제 의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생태환경의식을 불어넣어주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공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태비평의 이러한 도시 환경문제로의 관심이동은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된다.”<sup>3)</sup>는 의견에 공감하며, 생태문학이 현실적 삶과 호흡하기 위해서는 도시생태에 대한 보다 긴밀한 이해와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시생태가 생태문학의 중요 과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에 비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랫동안 자연을 탈인간중심적 관점에서 다루어온 관행이 강하게 작용하는가 하면, 도시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이는 경우도 도시의 녹색자연에 대한 사유보다는 독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도심 빈민 지역의 열악한 환경과 같은 ‘환경정의’ 담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sup>4)</sup> 도시생태를 ‘환경정의’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사회, 정치적 문제의식과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지극히 인간 중심의 사고여서 자연을 도구화하고 소외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생태문제에 대한 인간 중심적 관점을 비판하는 심층생태학의 기본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도시생태에서 인간과 자연이 맺는 관계의 현실적인 양상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도시생태에 대한 문학적 접근의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환경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치관이나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누적된 생태학의 성과들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시생태는 도시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다. 도시의 발달은 자연을 변화시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낸다. 급

---

었다. 또한 생태학은 당면한 환경위기의 극복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 사회환경을 열어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의 책, 471-2쪽) 이렇게 볼 때 도시 환경의 생태학적 비중은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 3) 신두호, 「녹색과 갈색의 경계지대-미국 도시근교자연문학과 생태비평의 영역 확장」, 『영어영문학』 54권 1호, 2008년, 32쪽.
- 4) 위의 글, 33-34쪽.

격한 자연 파괴가 이루어지며 인공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도시는 인간의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 모두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생활환경에 있어서는 수자원의 부족과 오염 현상이 생겨나며, 자동차 증가, 녹지 감소, 인공 시설물의 밀집에 의해 대기 오염이 심각해진다. 대도시의 경우, 소음과 진동의 문제가 새로운 환경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공간과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도시 간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며, 과학 기술의 발달과 일회용 식품의 증가로 인한 유해 화학 물질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자연 환경에 있어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도시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녹지 공간이 줄어들어 도시민의 휴식처가 사라지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sup>5)</sup> 이러한 도시생태의 특수성은 생태문학에서도 본래의 자연 환경과 다른 도시의 자연을 관심의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고에서는 한국 현대시에 나타나는 도시생태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화가 활발하게 진행된 우리나라에서 도시의 시적 수용은 풍부하게 이루어져 왔고 그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도시시’라는 특수한 장르 개념이 생겨날 정도로 도시는 우리시의 주요 소재로 자리잡고 있다. 지금까지 ‘도시시’에 대한 연구는 대개 모더니즘 시의 양상으로 언급되거나,<sup>6)</sup> 근대화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sup>7)</sup> 기존 연구에서 ‘도시시’는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과 소외 등 병리현상의 원천이거나 그것의

5) 이시경, 『도시 환경론』, 대영문화사, 2000년, 25-27쪽, 참조.

6) 서준섭, 「모더니즘과 1930년대의 서울」, 『한국학보』 45호, 1986년.

이미순, 「80년대 모더니즘 시 연구」, 『우리말글』 26집, 2002년.

고봉준, 「1930년대 경성과 李箱의 모더니즘」, 『문화과학』 45, 2006.3.

김동우, 「1930년대 모더니즘과 도시시학」, 『국어국문학』 149호, 2008.9. 등의 논문 참조.

7) 이남호, 「도시적 삶의 시적 수용」, 『한심한 영혼아』, 민음사, 1986년.

이건청, 「시적 현실로서의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현대시학』, 1992.8.

임도한, 「한국 현대 생태시 연구」, 1999년.

이희중, 「문명과 시의 불화-생태시의 현재」, 『오늘의 문예비평』, 2000, 여름호.

개성적 표현으로서의 모더니즘적 경향을 대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 강력하게 작용하며, 비판은 있으나 전망은 부재하는 부정적인 결론을 보여준다. ‘도시생태’라는 개념으로 도시의 자연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면 일방적인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 속의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고, 도시 문제의 극복과 대안의 방안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하석, 최승호, 이문재 시인은 뚜렷한 생태의식을 지니고 도시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왔기 때문에 도시생태의 수용 양상을 살펴려는 본고의 목적에 부합한다. 우리의 생태시는 도시화로 인한 자연 파괴를 비판하는 부류와 본연의 자연에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긍정하는 부류로 양분되는 경향이 강한데, 이들은 그 양자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의 시에 나타나는 인간의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으로서 도시생태의 양상, 그에 대한 시인의 가치관과 전망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2. 도시 변두리의 생태 관찰과 ‘초록의 길’의 발견 - 이하석

이하석의 시는 도시화가 생태에 끼친 영향의 구체적인 묘사에 있어 독보적이다. 그의 시에는 쇠조각, 유리 조각, 비닐, 폐휴지, 깡통 등 각종 쓰레기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도시 생활의 주요 산물이지만 도시의 한복판에서 밀려나 변두리에 버려져 있다. 도시의 악성종양은 그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주변 지역에서 더 심각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듯하다. 이하석은 차가운 현미경의 렌즈를 통하여 로렌츠가 비유적으로 말한 악성 종양의 가장자리를 미세하게 관찰한다.<sup>8)</sup>

폐차장 뒷길, 석양은 내던져진 유리조각  
속에서 부서지고, 풀들은 유리를 통하여 살기를 느낀다.  
밤이 오고 공기 중에 떠도는 물방울들  
차가운 쇠 표면에 엉겨 반짝인다.

---

8) 이남호, 위의 책, 145쪽.

어둠 속으로 투명한 속을 열어 놓으며,  
 일부는 제 무게에 못이겨 홀러내리고  
 흙 속에 스며들어 풀뿌리에 닿는다.  
 붉은 녹과 함께 흥건한 녹물이 되어  
 일부는 어둠 속으로 증발해 버린다.  
 땅속에 갇든 쇠조각들 풀뿌리의 길을 막고  
 어느덧 풀뿌리에 엉켜 혼곤해진다.  
 신문지 위 몇 개의 사건들을 덮는 풀. 쇠의 곁을 돌아서  
 아늑하게, 차차 완강하게 쇠를 잠재우며  
 풀들은 또 다른 이슬의 반짝임 쪽으로 뻗어나간다.

- 「뒷쪽 풍경 1」 부분

‘폐차장’은 도시적 삶의 불편한 진실을 함축하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화려한 도시의 ‘뒷쪽’ 풍경은 불결하고 추하기 이를 데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위 시에서 유리조각이나 쇠 같은 인공적 폐기물들은 자연물과 명백하게 대립된다. 풀들은 유리 조각들로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물방울들은 쇠로 인해 녹물이 된다. 심지어는 석양조차 유리 조각 속에서 부서진다. 도시의 쓰레기는 자연에 대해 폭력적인 가해자에 가깝다. 쇠조각은 “풀뿌리의 길”을 막고 자연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들에게 있다. 물의 오염과 관련된 시 「깊은 침묵」에서도 “옛 맑은 물은 수문을 빠져나갔고, / 수문 녹슬어 닫힌 채 물들 어두운 깊이만으로 / 썩어간다. 이 도시가 버린 자식들의 얼굴들 / 한밤 때때로 수면을 떠오르고 / 고기의 낚은 진흙 속에 처박힌다”고 하여, 폐수나 폐기물을 “도시가 버린 자식들의 얼굴들”로 파악한다. 도시에서 발생한 오염은 결국 자연을 파괴하며 생태계 전반을 교란시킨다. 쇠나 유리 조각 같은 인공물들도 인간에 의해 버려졌다는 점에서는 자연과 같은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이하 석의 시에서 각종 폐기물이 절대악으로 그려지기보다는 묘한 측은지심을 유발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위의 시에서도 풀뿌리를 위협하던 쇠조각이 “어느덧 풀뿌리에 엉켜 혼곤해진다”는 구절이 나온다. 버려진 쇠조각도, 자연 상태에서 인공의 쇠가 되어 도시의 한복판을 질주하다 고철이 되어 버려지는 고달픈 삶을 지나와, 이제는 마지막 자리에 지쳐 쓰러

져 있는 셈이다.

쓰레기들에 치어 연약해 보이기만 하던 풀은 오히려 그것들을 덮으며 생명을 이어나간다. 풀은 신문지에 가득한 복잡한 인간사도 넘어서고 쇠도 잠재우며 새로운 생명을 향해 뻗어나간다. 쓰레기까지 감싸안으며 생명을 지속해가는 자연의 치유력에 대해 시인은 지속적인 신념을 표출한다. “붉은 썩조각들의 틈을 비집어 넓히며 봄 가을 없이 / 소인 찍힌 풀들이 돌아난다. / 빈 하늘에 무슨 씨앗의 연애 편지가 오가는지 / 쇠가 이룬 산의 망루에 올라가 / 수염 깎은 감시자가 땅을 살살이 살피는 말든 / 풀들이 바람에 뒤엎긴다.”(「폐차장 3」)에서는 자연의 생명력에 대해 더욱 강한 확신을 보여준다.

이하석의 시에서는 도시생태의 파괴적 국면이나 자연의 치유력이 모두 치밀한 관찰에 의해 드러난다. 시선의 중심은 대상에 집중되어 있고 관찰의 주체와는 일정한 거리가 유지된다. “사물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어느 시인이 그렇듯이, 산업 사회의 폐기물과 같은 것이건, 아니건 간에, 구체적 사물에 대한 이하석의 관심은 인간 중심적인 우월한 시각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자 동시에 인간 존재의 의미 혹은 인간과 세계와의 바른 관계를 복원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sup>9)</sup> 시인은 생태계의 훼손을 발생시킨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사물의 입장을 관찰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른 각도로 인지한다. 인간에 의해 버려진 것들이 도시 주변에서 새로운 생태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폐기물과 폐수가 자연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편 자연이 본연의 생명력으로 그것들과 더불어 공생하는 장면을 포착한다. 시인은 도시 변두리의 세밀한 관찰을 통해 도시가 발생시키는 오염의 심각성을 포착할 뿐 아니라 자연의 놀라운 치유력을 인지하게 된다.

도시 변두리에 관한 세밀한 시선에 비해 도시의 중심을 향한 시인의 눈길은 지극히 부정적이고 단정적이다. 특히 도시의 빌딩은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갑자기 무너져 그녀를 덮은 / 건물은 청소되었다 / 황혼이 저쪽 공원의 나무에 붉은 칠 할 때 / 누가 도시 계획도를 보

---

9) 오생근, 「내면성의 시 혹은 삶과 자연」, 『촉백나무 울타리』, 문학과지성사, 1992년, 72쪽.

며 /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황혼」)에서처럼 쾌적하고 안전해 보이는 도시계획은 많은 위험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쾌속의 발전을 지향하는 도시는 설계 상에 잠재한 불안 요인에 의해 발생한 불의의 죽음도 일시에 소거시켜 버리고 안전성에 대해 가장하는 속성이 있다.

매끈한 외양으로 은폐되어 있는 도시의 구조는 실상 위험하기 그지 없다. 「유리 속의 폭풍」에서는 도시의 건축물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에 대한 박진감 있는 묘사가 이루어진다. “나는 기다려야 한다. 푸른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 길 건너 온통 거울로 벽을 바른 금융회사 육층 건물의 / 거울 속에 비쳐 있어야 한다. 폭풍의 구름 아래 / 솟아오르는 어두운 건물들의 덩어리 아래/너무 어두워 이쪽에선 보이지 않지만 / 나는 조그만 덩어리로 비쳐 있어야 한다.”에서 폭풍 같은 자연 재해 앞에 도시의 환경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도시의 중심은 대개 고도 자본주의의 견인차인 금융 회사의 건물이 차지한다. 온통 유리로 장식한 현대적 외관은 세련돼 보이지만 위험롭다. 전신주가 꺾일 정도로 심한 폭풍 속에서 유리로 된 빌딩은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조작되는 도시는 위험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조차 통제한다. 쏟아질 듯 위태로운 유리 건물 앞에는 신호등까지 놓여 있어 사람들을 꼼짝할 수 없게 한다. 도시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인공적인 구성물들이 치명적인 위험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시인에게 도시 환경은 안정적 거처나 편안한 휴식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된다. 자연 속에서 노동과 휴식이 이루어졌던 전 시대와 달리 현재의 도시 생활은 진정한 휴식처로서의 자연을 일상과 멀어진 것으로 이분화한다. 그래서 도시는 고달픈 생활의 장이고 휴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을 찾아 떠나야 하는 복잡한 이중고가 생겨난다. “대도시 빌딩에서 내 의식(儀式)은 / 창을 열고 빌딩 밖으로 얼굴을 한껏 내민 채 / 구름을 불러 마음이 그 위에 타는 것. / 갇힌 모래에 이는 바람을 깊이 삼키며 / 나는 모래에, 상한 구름 기둥을 꽂아둔다. / 그런 다음 사물실로 돌아와 주말 등산을 신청한다.”(「금요일엔 먼데를 본다」)는 상황은 대



도시의 직장인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도심 개발은 휴식처로서의 녹지 공간을 축소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대도시의 빌딩에서 창을 열고 열 굴만이라도 밖으로 내밀어 호흡하는 광경은 도시 직장인의 답답한 삶을 대변한다. 그들은 막힌 숨통을 뚫기 위해 주말이면 자연을 향해 나간다. 도시에서 자연은 생활공간의 바깥 쪽 ‘먼데’ 위치하여 따로 찾아가야 할 곳이 된다.

시인은 질식할 듯한 도시의 인공적인 환경에서 놓여나 제대로 숨쉬며 살 수 있는 길이 자연 속에 있다고 본다. 그의 많은 시들은 도시생태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자연에서 작은 생명의 기미를 발견한다. 그는 도시와 자연의 접점에서 생명의 길을 찾는다.

나의 길은 도시에서 도시로 이어지지만  
저 새의 길은 숲에서 숲으로 이어진다.  
- 「상처 1」 부분

희망은 멀리 — 저기, 심인광고와  
구인광고들이 덕지덕지 붙은 푸른 벽을 돌아간  
길을 지나 — 있지 않고  
바로 여기 — 민들레가 먼지를 가르며 돌는  
구석진 참호 — 에 있다  
- 「희망」 부분

모든 풀벌레들의 울음은 죽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 하나하나가 온 길을 비로소 찾아 나설 마음이 있다. 풀무치는 초록의 길을 따라, 산이나 들에서 이 도시의 깊은 곳으로 왔다. 처음엔 들판에서 쉽게 이어진 초록의 길이 도시 변두리의 빈터로 이어졌으리라. 그 다음엔 우리가 모르는 풀에서 풀로 이어진 길이 풀무치를 미세하게 이끌었으리라. 그렇다면, 이 도시의 회색 콘크리트의 세계에도 자세히 보면 — 풀무치의 눈으로 보면 — 들과 산으로 이어진 초록의 길이 있다.  
- 「초록의 길」 부분

인간의 길은 계속 도시에서 도시로 이어지고 새의 길은 숲에서 숲으로 이어질 것이다. 문제는 공존의 길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연

을 파괴한다면 인간의 길도 지속되기 어렵다. 시인은 인간들의 생존경쟁으로 들끓는 도시 한복판이 아닌 구석진 빈터에 피어난 작은 풀꽃에서 생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발견한다. 인간이 초록 생명의 길에 동참하는 방법은 자연의 작은 생명체들을 돌아보고 연민하는 마음이다. 도시의 좁은 땅을 ‘참호’ 삼아 피어난 풀꽃을 경이로워하고 도심 한복판으로 날아든 새를 염려하는 마음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가능케 한다. 시인은 초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오는 작은 풀벌레나 꽃이나 새가 내놓은 길에서 희망을 찾는다. 이는 자연에 대한 신격화와는 다르다.<sup>10)</sup> 그는 작은 생명들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해 생명의 실질적인 현상을 발견한다. ‘풀무치의 눈’으로 길을 찾는 것이 인간 중심적 발상의 위험성에서 도시생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임을 제안한다.<sup>11)</sup> 자연을 찾아 도시의 ‘밖’으로 나갈 뿐 아니라 도시의 한복판으로 자연의 길을 끌어들이는 것은 도시생태의 향방에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도심 생태의 비판적 통찰과 무위자연의 대조 - 최승호

이하석의 시에서 도시 변두리의 관찰이 특징적인 것에 비해 최승호의 시에서는 도시 중심의 생태에 대한 관찰과 비판적 통찰이 두드러진

- 
- 10) “그에게 있어서 도심 속의 초록은 일정하게 통합의 구실을 해준다. 그런데 그의 시속에 나타난 자연은 너무나 신격화되어 있다. 자연 자체가 통합, 동일화의 근거로 떠오르다 보니 자연이 신격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연을 신격화하는 것은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늘날 도시문제, 생태환경문제를 초래한 것도 인간이지만, 그것을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도 인간의 몫이다.”라는 비판이 있다.

최승호, 「도시적 서정시의 맥락과 현재적 가능성」, 『우리말글』 26호, 2002년, 461쪽.

- 11) 이러한 생각은 도시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대책과도 상통한다. 도시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제시되는, 도시 녹지축의 형성, 도시 지역 땅의 회생, 도시생태계의 생물종 다양성 증진 등의 대책은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다.

이경재, 「지역 및 도시개발의 문제와 대책 : 도시생태계의 현황과 회복 대책」, 『건축』 37권 2호, 1993년, 66쪽 참조.

다. 특히 도시 특유의 생활 환경과 관련된 많은 시들은 도시생태가 근본적으로 병적이고 파괴적이라는 점을 묘파하고 있다.

고층과 지하로 이루어지는 건물 구조는 도시인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는다. 「지붕들」 “어두운 지붕들, 고층건물 옥상에서는 간혹 투신자살사건이 일어날 뿐.”에서는 죽음을 부르는 도시의 고층 구조를 담담한 어조로 거론한다. ‘간혹’이라는 부사는 고층에서의 투신 자살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한다. 도시의 고층 구조가 충동적인 죽음을 유발한다면 지하는 서서히 생명을 잠식해간다. “그녀는 지하생활자가 되어간다 / 지하철을 타고 지하상가의 많은 물건들을 / 방에다 가득 채우는 그녀의 머리에 / 끈끈한 음식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 나는 보고 있다 그녀는 / 지하생활자가 되어간다”(「씩는 여자」)의 ‘그녀’는 지하 공간과 밀착되어 있는 도시인의 생활을 대변한다. 지하철과 지하도를 해마다 밤이면 지하방에서 잠드는 ‘그녀’는 “조금씩 시체를 닳아”간다. 시인은 지하생활의 부정적인 속성을 섬뜩하게 묘파한다. 도시의 지하 공간이 얼마나 삭막하고 비위생적인지는 「지하 주차장」이라는 시에서 잘 그려진다. “콘크리트 기둥들, 천장의 배관, 여기 대도시의 한 냄새가 있다. // 먼지와 / 시멘트가루와 / 매연이 뒤섞여 / 콧구멍을 말리는 냄새”로 가득한 지하주차장은 열악한 도시생태를 대표하는 공간이다. 시인은 “만년 뒤에 누가 이곳을 발굴하면 出土品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고 예상한다. 그의 시에서 도시의 생활환경은 무생명과 인공적인 느낌으로 가득하다.

옛답 하나 없는 별판의 신촌도시에서  
가건물인 상점들을 본다  
거대한 가짜 깡통을 받치고 있는  
옥상의 광고탑 기둥들  
비디오가게의 근육질 포스터들  
비닐은 도처에서 필러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누구보다도  
조화옹(造化翁)이 들여다봐야 할 조화(造化)들  
생명 없는 나무에  
종이꽃이 피고

화분의 흙은 진짜 흙인지  
 가짜 개미도 한 마리 걸어가는지  
 가건물이 늘어선 거리에서 욕망은  
 광고빨이 먹혀든 상품들을 집어삼키고  
 포장된 선물상자를 뜯어보니  
 가짜 눈알만 하나 뚱그렇게 놀라  
 가짜인 나를  
 보고 있다면

- 「생명 없는 나무에 종이꽃이 피고」 전문

신흥도시에서 인공적인 도시생태는 단적으로 드러난다. 역사의 흔적도 자연의 숨결도 찾아보기 힘든 이 인공적인 도시는 ‘가건물’, ‘가짜 깡통’, ‘조화’, ‘종이꽃’, ‘가짜 눈알’ 등 ‘가짜’로 가득하다. 가짜로 뒤덮힌 인공의 도시에서 시인은 공허한 욕망의 본질을 통찰한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인위적인 조작의 흔적은 생활의 곳곳에 침투해 있다. “하나의 桶 속에서 / 죽어가는 작은 게들 / 양파의 웅크림 / 멸치떼의 침묵 / 다 들어진 파와 쭉갓 / 냉각된 기류는 소리없이 흘러다니고 / 나의 의식은 냉장고 속 죽은 물고기의 / 차가운 뼈에 닿고 있다”(「냉각된 도시에서」)에서 묘사되는 풍경은 익숙한 도시생활의 단면이다. 도시생활에서는 일용할 양식들조차 자연의 상태에서 떨어진 채 가공되어 있다. 잘 다듬어져 가지런히 정돈된 식품들은 죽음의 이미지를 풍긴다. 시인은 인공물로 넘쳐나는 도시의 생태를 병이나 죽음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한다.

오염된 도시생태의 심각성을 포착하는 시인의 시선은 지극히 냉철하고 예리하다. 그의 시는 사실에 대한 치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할 뿐 아니라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통찰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의 헛된 욕망이야말로 도시의 삶을 죽음으로 이끄는 문제의 핵심이다. 욕망은 무한 증식하며 가속화되는 속성이 있다. 최승호의 시에서 질주하는 ‘바퀴’는 욕망의 질주와 파멸의 궤적을 상징한다. “소음이 땀뻘처럼 들끓는 거리가 붕붕거린다/붕붕거리는 소리를 쫓아 뒤질세라 떼지어 붕붕거리며/중고차 시장으로 폐차장으로/고철을 향하여 질주하는 욕망의 바퀴들이다”(「붕붕거리는 풍경」)에서처럼 자동차의 소음으로 가득한 도시의 거리는 욕망의 도가니를 연상시킨다. 시인은 죽음조차 불사하는 욕망의 질

주를 간명하게 포착해낸다.

도시생태를 담고 있는 최승호의 시들은 파멸을 향한 무한 욕망의 현상에 집중한다. 그 욕망은 너무 압도적이어서 대안을 찾기 어렵다. 작은 생명들이 열어보이는 초록의 길을 발견한 이하석과 달리 최승호의 시에서 도심의 작은 생명들은 인간 욕망의 희생물일 뿐이다. 「질주」에서 비둘기는 질주하는 자동차들에 무참하게 희생된다. 죽어가는 비둘기를 발견했는데도 속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자동차를 타고 있었고 뒤에서 자동차들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으므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었다. 감전된 듯 푸득푸득거리면서 비둘기를 점점 등 뒤로 떨어져 갔다. 사실은 우리가 빠르게 도망자들처럼 떨어져 가고 있었다. 에어콘을 틀고 있었고 차 유리문을 다 닫고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의 절규도 그 어떤 울부짖음도 들려오지 않았다.”는 고백처럼 현대적 도시의 생태 자체가 작은 생명들에 위협적이다. 모두가 질주하는 상황에서 작고 연약한 존재들을 돌아볼 여유는 없다. 그리고 자동차가 그러하듯이 외계와 차단된 밀폐된 환경으로 인해 서로 고립된 채 저마다의 길을 달려갈 뿐이다. 인공에 밀려 자연은 버려지고 파괴되어 간다.

최승호의 시에서 도심 속의 자연은 인공에 압도되어 미약하기 그지 없거나 기형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잠원역의 누엣늪은이」에서 지하철역 입구의 기둥 밑에 돌아난 생명은, “사막식물처럼 / 오지 않는 희귀한 나비를 기다리는 / 민들레”에서처럼 사막 같은 환경에서 나비를 기다리는 듯 부정적인 상황에 놓인 것으로 표현된다. 도심의 생태는 자연의 생명이 유지되기 힘든 열악한 환경인 것이다. 뿔나무밭이 가득했던 잠원역에는 “8미터짜리 누에”가 타일 벽에 자리잡고 있다. 옛 지명의 상징만 남고 자연은 사라진 상태이다.

왕숙천에 사는 뽕추물고기들을 보았다면 당신도 莊子의 道를 의심하게 되었을 것이다. 뽕추물고기가 아가미를 벌름거리는 것도, 머리 없는 개구리가 아무데로나 뛰는 것도 道의 묘한 작용이다. 무너아들은 그걸 긍정했을 것이다. 그걸 긍정할 수가 없다. 그걸 긍정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글이 뒤틀린다. 이 대목에선 道가 독약 먹은 듯 자빠진다.

- 「잠원역의 누엣늪은이」 부분

시인은 도심의 생태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특유의 냉소와 반어로 이야기한다. 도시의 하천에 사는 ‘뽕추물고기’와 ‘머리 없는 개구리’는 심각한 수질 오염 상태를 보여준다. 시인은 뒤틀리는 언어로 그 충격을 표현한다. 도시의 병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자연을 이끄는 도의 작용조차 무력해지는 듯하다. 최승호의 시에서 도시문명과 대비되며 비판적 대안으로 제시되는 무위자연의 도가 이 시에서는 “독약 먹은 듯 자빠진다.” 최승호의 시에서 도의 작용이 가장 잘 그려지는 경우는 자족적인 생명으로서의 공간을 그릴 때이다.<sup>12)</sup> 도심 속에서 기형이 되어가는 생명체는 자연이 제어하지 못하는 도시생태의 심각한 오염 상태를 드러낸다.

최승호 시에 나타나는 도시생태에서 ‘나무’가 차지하는 의미는 독특하다. 그의 시에서 나무나 식물의 이미지는 그리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인조 꽃이나 인조 나무, 혹은 죽은 나무들이 가끔씩 등장하여 도시의 인공적이고 삭막한 풍경을 드러낸다. 번잡하고 인위적인 도시 환경에서 식물처럼 고요한 존재는 쉽게 소외된다. 「화분」이라는 시에서는 시인 자신이 옥상에 올려놓고 잊고 있던 화분에 대해 “소외의 군락에서도/또 소외가 일어난다”는 성찰을 보인다. “어두운 하늘 밑 취회색 지붕들” 사이에서 우두커니 비를 맞고 있는 화분은 도시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자연의 위상과도 같다. 도시의 환경은 나무의 생장에 적합하지 않다. 오염된 공기와 물, 협소한 토양 등은 나무의 생존에 위협적이다.

나무를 죽이는 비가 온다. 대머리들이 두려워하는 식초 같은 비, 黑林을 古鐵의 숲처럼 찌그러뜨린, 산성비가 온다. 그래도 나무를 심어야 한다. 우리가 스피노자는 아니지만 나무를 심어야 한다. 오색딱다구리, 소쩍새,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무를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한다. 우리가 내보낸 오줌 같은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되돌아온다 해도, 땅이 없고 흙이 없어도 나무를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한다.

- 「나무를 심는 사람」 부분

12) 이해원, 「육망의 원리와 무위자연의 도」, 『생명의 거미줄』, 소명출판, 2007, 198쪽.

나무에 대한 시인의 생각이 전면에 등장하는 이 시에서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직접적인 발언을 행한다. 흔히 하는 말처럼 자연과 인류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무를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한다. 늘 다른 무언가를 위한 도구로 삼는 나무를 중심에 놓음으로써 모든 존재의 존귀함을 각성시킨다. 나무 그 자체를 인식하고 그것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만물의 평등한 생명권에 대한 자각에 기반하며 생태계의 존속을 위한 근본적인 자세라 할 수 있다.

시인은 소멸을 향해 질주하는 ‘휘발성의 거리’에서도 굳건하게 버티며 의연하게 우람해지는 나무의 강한 생명력에 주목한다. “플라타너스에 박힌 굵은 못을 / 해마다 나이테가 천천히 삼키는 중이다”에서 나무는 고난을 감내하며 단련되는 성자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대지 위의 농부는 / 한 그루 농부라고!”(「타일 위의 잠」)하는 것으로 알 수 있듯 나무에 대한 시인의 애착은 두드러진다. 나무와 농부는 다 같이 대지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오랜 시간을 견뎌온 존재들이다. 인공의 구조물과 병든 자연으로 가득한 도시에 대지의 강인한 생명력을 증명하는 나무는 도시생태와 무위자연의 도를 접합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저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며 생명을 퍼올리는 나무는 “언제나 아무 활동도 하는 바가 없지만 또한 안 하는 바가 없다”<sup>13)</sup>는 도의 실천과 유사한 생태를 보인다. 시인은 나무 자신을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곧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길이기도 하다.

#### 4. 도시 산책자의 시선과 ‘개인’의 각성 - 이문재

이하석이나 최승호가 시인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은 채로 도시생태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이나 통찰을 행하는 것에 비해 이문재의 시에서는 시인의 존재가 뚜렷이 드러난다. 그는 시에서 직접 움직이고 사유한다. 시에서 그는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눈에 들어온 풍경을 관조하고 끊임없는 사색을 행한다. ‘산책’은 이문재 시의 태도나 방법론에 해당한다.

13) 『老子』, 道常無爲章 第三十七, “道常無爲, 而無不爲”.

그의 산책이 특징적인 것은 대도시의 중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도시 환경은 산책하기에 그리 적합하지 않다. “도시는 단 한 사람의 산책자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느낌보는 / 가장 큰 죄인으로 몰립니다 / 게으름을 피우거나 혼자 있으려 하다가 / 도시에게 당하고 말지요/이 도시는 산책의 거대한 묘지입니다”(「마지막 느낌보-산책시 3」)에서 말하듯 도시생활은 게으르게 돌아다니는 산책자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시인이 산책을 지속하는 것은 도시의 지배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크다. “산책만이 두 눈과 귀를 열어준다는 비밀”을 아는 시인에게 산책은 의식화된 행위이다. 이는 도시의 거리를 근대적 삶의 상징으로 간주한 벤야민을 연상시킨다. 벤야민은 산업화 시대의 부산물인 대도시의 군중이라는 ‘현상’과 거리의 다양한 자극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산책자의 양가적 ‘시선’에 주목한다. 산책자는 군중에게 매혹당한 집단의 일원인 동시에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관찰하는 양면적 존재이다.<sup>14)</sup> 산책을 통해 시인은 도시의 다양한 생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대도시의 구성원이자 산책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각성한다.

산책자로서의 시인은 눈앞에 펼쳐지는 도시생태에 매혹되면서도 비판적이다. “나의 눈이 가는 길, 서울에선 없다, 서울이 수시로 내 눈을 끌어당길 뿐이다, 광고의 아우성과 매체의 잡음 속에서 광고의 잡음과 매체의 아우성으로 나온다”(「타워 크레인-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에서는 각종 광고의 시각적 자극에 이끌리면서도 그것의 문제점을 직시한다. 도시의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주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시인은 자신의 시선을 압도하는 도시의 풍경을 위협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깜박이는 빛에 대한 경계가 두드러진다. 깜빡거리는 것들은 쉴 새 없이 주의를 끌며 시선을 조종하기 때문이다. 깜빡이는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시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깜빡거리는 저것들을 응시하라 / 그러면, 깜빡, 거리며 /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저 깜빡이는 것들-산책시 5」) ‘응시’는 주체가 대상을 능동적으로 의식하는 방법이다. 대상을 주체적으로 끊임없이 의식한다면 그 허상을 깨닫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인은 도시를 관조하

14) 반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83년, 164쪽.



면서도 비판하는 산책자의 시선을 유지하려 한다.

도시생활자로서 시인은 도시생활에 익숙하면서도 그에 대한 비판 의식과 각성이 뚜렷하다. 그에게 도시의 생활 환경은 아무래도 기이하고 어색한 것으로 인식된다. “29층 화장실 / 멀리 한강은 아주 느린 하류 / 변기에서 움찔 놀란다 / 바다의 한 입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천지간」)는 순간적 인식은 인공적인 도시적 생태의 기묘함을 각성시킨다. “표고 45미터에서 잠자고, 지하철을 한 시간 타고 도심으로 나와서 지상 21층에서 일하다가, 점심 때는 대개 29층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저녁에는 간혹 지하 생맥주집에 들렀다가 곧장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간다”(「그날이 어느 날-고독한 산책자의 몽상」)고 따져보면 땅에 발 딛을 틈 없이 사는 고층생활의 기이함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삶 자체에서 도시생태의 부자연스러움을 간파한다.

시인은 첨단의 도시생태에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에 비해 과거의 자취에는 강한 애착을 보인다. 그가 도시의 한복판에서 발견한 농업박물관은 시간의 개념에 대한 일대 충격으로 다가온다. “불과 30년 사이에 농업은 박물관으로 들어가게 되었”(「농업박물관 소식-목화 피다」)다는 사실은 놀랄 만큼 빠른 시대의 변화를 깨닫게 한다. 농업이 벌써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실정이라면 “내 손자가 이 할애비를 도시박물관에서 찾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상상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속도에 잡아먹힐지도 모를 도시가 농업을 박물관에 넣고 농사를 분재로 만드는 광경에 시인은 격분한다. “세종문화회관 앞의 곡식이나 / 지하철 승강장의 새소리 / 광고 옆에 붙어 있는 한국 명시를 볼 때마다 / 나는 욕지기가 납니다 / 농업에게 미안합니다”(「농업박물관 소식-도시의 말이 없고」)는 직설적인 감정의 토로는 농업이 대변하는 과거의 시간을 박제화하는 도시의 생태에 대한 강한 부정에 기인한다. 그는 현재에 대한 부정과 과거에 대한 선호를 뚜렷하게 표명한다. 가령 종로 뒷골목의 피맛골에서는 “나름대로의 격조”를 발견하고 “詩人不大路行”(「피맛골 안내문-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이라며 동질감을 내비치기도 한다.

산책자로서의 시인은 대도시의 구석구석을 거닐며 과거와 현재의 삶을 대조하고 응시한다. 그는 현재에 대한 비판을 통해 그 대안으로서 농

업에 바탕을 둔 ‘오래된 미래’를 제안한다. “요즘 내가 쓰고 있는 ‘농업 박물관 소식’은 결핍의 미학, 견딤의 미학에 근거하고자 한다. 그 시들은 우선 농업의 시대, 저 농경공동체 문화에 대한 유전자적인 그리움을 짙게 풍기면서 문명을 야유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문명을 위한 단초를 찾으려 한다. 나는 사상가나 이론가가 아니므로, 나는 당초에, 그리고 앞으로도 시인일 것이므로 어떤 징후나 직감, 혹은 꿈과 예감의 한 가닥을 겨우 붙잡고 그것을 말하려 할 뿐이다.”<sup>15)</sup>라는 말처럼 시인으로서의 그는 과거의 문명인 농업에서 근대문명을 극복할 수 있는 예지를 찾으려 한다. 농업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던 시대의 생활방식이다. 자연은 결핍과 견딤의 시간을 겸허하게 지나온 인간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고 생명을 유지시킨다. 그에 비해 효율성이 증대된 근대에 이르러 인간은 오만하게 자연 위에 군림해왔다. 시인에게 농업은 ‘은유’이며 자연 파괴를 감행해온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으로써의 의미가 강하다.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광화문은 광화문(光化門)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부분

겨울에 도시의 가로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꽃나무’도 자연에 가하는 문명의 폭력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온몸을 전선으로 감고 밤에도 겨울에도 쉬지 못하고 시달리는 나무는 자연을 지배하려는 근대 문명의 희생물이다. ‘겨울나무’를 휘감고 있는 전원은 자연의 생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이상한 광합성’을 일으킨다.

이처럼 ‘전원’은 인간과 자연을 포함하여 근대문명을 지배하는 시스

15) 이문재, 「미래와의 불화」, 『마음의 오지』, 문학동네, 1999, 101쪽.

템의 중핵이다. “제국발전소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 시민은 시민이, 아니 생명체가 아니다”(「제국호텔-더이상 빌어올 미래가 없다」)에서 말하듯이 첨단 문명에 의해 유지되는 현대도시의 생태는 그 주민들에게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한다. ‘깜빡이는 것들’처럼 ‘전원’은 시선과 의식을 마비시켜 자율적인 판단을 제거한다. 모두가 똑같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의식이 없다. 개인은 사라지고 동일한 욕망의 궤적만이 남는다. 시인은 개인이 상실된 허황한 욕망의 관제탑을 ‘제국호텔’이라고 부른다. ‘제국호텔’의 반대편에는 ‘오래된 미래’인 ‘농업’이 있다. ‘제국호텔’의 유혹을 극복하고 ‘농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산책자로서의 각성과 개인으로서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나 도망가는 법 터득했다  
집 떠날 필요 없다  
파워 오프 —  
가만히 앉아서 모든 전원을 끌 것

고개 들어 먼산 바라보니  
만산홍엽  
빨갭게 불을 켜 나뭇잎들이  
전원을 내리고 있다

내 안에 조금씩 전기가 고이고  
밤이 오고 아침이 온다  
그러고 들여다보니  
나 아주 오래 된 수력발전소  
- 「만산홍엽-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부분

시인은 ‘제국호텔’의 통제에서 도망하는 법으로 “가만히 앉아서 모든 전원을 끌 것”을 주문한다. 전원을 끄는 순간 문명은 멀어지고 자연은 가까워진다. 가을이 되면 전원을 내리고 숙면을 준비하는 나무들처럼, 전원을 내린 시인은 “밤이 오고 아침이 오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리듬을 회복한다. 외부의 전원을 끈 후 그는 자신에게 자가발전이 가능한 수

력발전소가 내재해 있었음을 발견한다. 개인의 발견은 현재의 삶에 대한 대안으로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 “나는 ‘개인’이기 위하여, 개인을 옹호하기 위하여 시를 쓴다. 개인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선천이나 선택이 아니다. 끊임없는 자의식, 즉 깨어 있음만이 개인을 가능케 한다. 나에게 시쓰기는 개인으로 존재하기와 같은 말이다.”<sup>16)</sup>라고 하듯, 시인이 추구하는 ‘개인’은 자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이다.<sup>17)</sup> 그러니까 그에게 ‘개인’은 ‘시인’과 동의어라고도 할 수 있다. 시인은 근대의 획일화된 욕망에 갇히지 않고 침단의 도시 속을 느리게 산책하며 자신의 시선으로 현재와 미래를 간파하는 자이다. 그의 시에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나’는 ‘개인’으로서의 자유와 비판의식을 잃지 않으려하는 시인의 부단한 자의식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5. 결론

최근의 생태문학에서는 도시생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다수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어 살아가는 현실적 상황과의 긴밀한 호응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도시생태에 대한 문학적 접근은 인간과 자연이 맺는 관계의 현실적 양상을 살피면서 생태문제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가능케 하는 심층생태학의 관점을 필요로 한다. 본고에서는 이하석, 최승호, 이문재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시에 나타나는 도시생태의 수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도시’와 관련된 시들을 모더니즘적인 경향으로 파악하거나

16) 위의 글, 101-102쪽.

17) 각성된 개인의 중요성에 대한 시인의 인식은 들뢰즈의 ‘소수자 되기’ 개념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들뢰즈는 백인, 남성, 어른, ‘이성적임’ 등의 중심점에 의해 유지되는 고정된 구조의 지배구조에 반하는, 다수성의 탈영토화된 변수로서 존재하는 소수성을 중시한다. 소수자 되기는 자신의 요소들인 탈영토화된 매체와 주체를 통해서만 존재하는데, 이런 예상할 수 없지만 능동적인 작은 디테일이 없이는 다수성에서 이탈하지 못한다.(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년, 552-553쪽 참조.) 소수자인 개인으로서 끊임없이 깨어있는 자의식을 추구하는 이문재 시인의 방식은 욕망의 제국에 저항하는 ‘소수자 되기’의 미시정치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비판적 사회시로 언급하던 기존의 관점과 달리,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의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도시 속의 자연을 새롭게 보고 도시생태 문제의 극복과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하석은 도시 변두리의 생태에 대한 치밀한 관찰과 구체적인 묘사를 행한다. 그는 도시 변두리에 버려진 폐기물들을 정밀하게 관찰하여 도시생태의 심각한 오염 양상을 드러낸다. 그의 치밀한 관찰력은 도시생태의 파괴적 국면뿐 아니라 자연의 치유력을 발견한다. 이하석 시에 두드러진 구체적 사물에 대한 관심은 인간 중심적 시선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시인은 도시생태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에서 나아가 도시와 자연의 접점에서 초록 생명의 길을 찾아낸다. 작은 생명체의 눈을 따라가는 방법으로 자연과 도시의 공존 가능성을 제시한다.

최승호는 도시 중심의 생태를 날카롭게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통찰한다. 그는 인공적 도시의 병적이고 파괴적인 양상을 간파한다. 그의 시에서 도시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시인은 도시가 보이는 파멸적 징후의 근본적 원인으로 욕망의 문제를 포착한다. 욕망의 무한증대는 너무 압도적이어서 대안을 찾기 힘들다. 도심의 생태는 작은 생명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폭력성을 드러낸다. 병적 상태가 심각한 도심에서는 자연을 이끄는 도의 신묘한 작용을 찾기 힘들다. 도시의 자연 중에서는 ‘나무’가 대지의 강인한 생명력을 대변하며 무위자연의 도를 도시생태 속에 접합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문제는 산책자의 시선을 유지하며 도시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보여준다. 그는 도시의 구성원으로 생활하면서도 도시생태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각성한다. 그는 첨단 도시생태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며 비판적 대안으로서 ‘오래된 미래’를 제안한다. 전시대의 문명인 농업에 바탕을 둔 오래된 미래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시인은 도시자연의 생태를 교란하고 도시의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문명의 이기인 ‘전원’을 끄는 데서, 근대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법을 터득한다. ‘개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며 끊임없이 각성된 의식을 추구함으로써 도시의 병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지를 발현한다.

우리시에서 도시생태의 시적 수용을 대표하는 세 시인을 통해 인간 중심적 관점을 극복하고 자연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치밀한 관찰과 비판적 통찰, 자유롭고 깨어 있는 산책자의 시선이 도시의 문제를 바로 볼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생태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며 독자적인 미학을 형성하여 폭넓은 공감을 얻는 생태문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도시생태, 이하석, 최승호, 이문재, 도시 환경, ‘초록 생명’의 ‘오래된 미래’, ‘개인’

투 고 일 2008년 10월 29일   심사완료일 2008년 12월 5일
---

## <인용문헌>

- 이문재, 『내 젖은 구두 벗어 해에게 보여줄 때』, 민음사, 1988.
- , 『산책시편』, 민음사, 1993.
- , 『마음의 오지』, 문학동네, 1999.
- , 『제국호텔』, 문학동네, 2004.
- 이하석, 『투명한 속』, 문학과지성사, 1980.
- , 『김씨의 옆얼굴』, 문학과지성사, 1984.
- , 『우리 낯선 사람들』, 세계사, 1989.
- , 『촉백나무 울타리』, 문학과지성사, 1992.
- , 『금요일엔 먼데를 본다』, 문학과지성사, 1996.
- , 『녹』, 세계사, 2001.
- 최승호, 『대설주의보』, 민음사, 1983.
- , 『고슴도치의 마을』, 문학과지성사, 1985.
- , 『진흙소를 타고』, 민음사, 1987.
- , 『세속도시의 즐거움』, 세계사, 1990.
- , 『회저의 밤』, 세계사, 1993.
- , 『반딧불 보호구역』, 세계사, 1995.
- , 『눈사람』, 세계사, 1996.
- , 『여백』, 솔, 1997.
- , 『그로테스크』, 민음사, 1999.
- , 『모래인간』, 세계사, 2000.
- ,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나』, 열림원, 2003.
- 노 자, 우현민 역주, 『노자』, 박영사, 1976.
- 이시경, 『도시 환경론』, 대영문화사, 2000.
- 최병두, 『환경갈등과 불평등』, 한울, 1999.
- 최운식, 『미래사회와 환경』, 한울아카데미, 1999.
- 반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83.
-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 고봉준, 「1930년대 경성과 이상의 모더니즘」, 『문화과학』 45, 2006.3.
- 김동우, 「1930년대 모더니즘과 도시시학」, 『국어국문학』 149호, 2008.9.
- 서준섭, 「모더니즘과 1930년대의 서울」, 『한국학보』 45, 1986.
- 신두호, 「녹색과 갈색의 경계지대-미국 도시근교자연문화와 생태비평의 영역화

- 장」, 『영어영문학』 54권 1호, 2008.
- 오생근, 「내면성의 시 혹은 삶과 자연」, 『측백나무 울타리』, 문학과지성사, 1992.
- 이건청, 「시적 현실로서의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현대시학』, 1992.8.
- 이경재, 「지역 및 도시개발의 문제와 대책:도시생태계의 현황과 회복 대책」, 『건축』 37권 2호, 1993.
- 이남호, 「도시적 삶의 시적 수용」, 『한심한 영혼아』 민음사, 1986.
- 이미순, 「80년대 모더니즘 시 연구」, 『우리말글』 26집, 2002.
- 이혜원, 「욕망의 원리와 무위자연의 도」, 『생명의 거미줄』, 소명출판, 2007.
- 이희중, 「문명과 시의 불화-생태시의 현재」, 『오늘의 문예비평』, 2000 여름호.
- 임도한, 「한국 현대 생태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1999.
- 최승호, 「도시적 서정시의 맥락과 현재적 가능성」, 『우리말글』 26호, 2002.



## <Abstract>

# The Poetic Accommodation and Prospect of Urban Ecology

- Focus on the poetry of Lee, Ha-Suk, Choi, Sung-Ho, Lee, Mun-Jae

Lee, Hye-Won  
(Korea university)

Literary approach to the urban ecology demands on not only real aspects of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nature, but also viewpoint of deep ecology which able to basic critique to the ecological problem. This paper studied on the aspects of accommodation to the urban ecology that was found in the modern Korean poetry especially focused on Lee, Ha-Suk, Choi, Sung-Ho, Lee, Mun-Jae's poetry. This paper was different from others that grasped the poetry related with the urban to the modernism or critic social poetry. This paper tried to free from the human centric viewpoint, so attention the mutual relation between urban environment and human and searched the method for subjugation and alternative plans of urban problems.

Lee, Ha-Suk's poetry is special in the delicate observation and concrete description to the ecology of urban outskirts. The interest to the concrete things in his poetry sets up the alternative plans to the human centric viewpoint. He tries to not only critic to the negative side of urban ecology, but also search 'the way of green life' in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urban and nature.

Choi, Sung-Ho absorbs the ecology of urban center and gets an insight into it critically. The urban in his poetry is polluted seriously and proceeds to the destruction. He finds the fundamental reason of its destruction in the problem of desire. In his poetry, 'the tree'

represents of the ground's strong vitality, and shows the possibility of joining between the way of nature and urban ecology.

Lee, Mun-Jae takes the eyes of stroller and shows the critic thinking to the urban. He suggests 'the old future' as the alternative plan for the urban ecology. 'The old future' that is based on the agriculture can be the method for the coexistence of human and nature. He pursuits freedom as 'an individual' who is awakening continually, and fetches out the wisdom for getting ride from urban pathology.

**Key Words:** Urban Ecology, Lee Ha-Suk, Choi Sung-Ho, Lee Mun-Jae, Urban Environment, 'The way of Green life', 'The Old Future', 'An Individual'